

2018년 6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18. 6. 19. (화) 8:00~9:00
장소 : 서울시청 본관8층 간담회장2
참석 : 재적인원 12명/ 출석인원 7명

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입니다.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선출 주재는 전 부위원장님이신 ○○○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 ○ 위원

위원장에 자원하실 분 또는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 ○ 위원

위원 경력이 가장 오래되신 ○○○ 위원님을 추천함.

○ ○ ○ 위원

동의함.

○ ○ ○ 위원

경험이 가장 많으신 ○○○ 위원이 적격이라고 봄.

○ ○ ○ 위원

동의함.

○ ○ ○ 위원

○○○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는 것에 모두 동의 하시는지?

(“예.”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박수를 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의사봉 3타!)

부위원장에 자원하실 분 또는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 ○ 위원

○○○ 위원을 추천함.

○ ○ ○ 위원

동의함.

○ ○ ○ 위원

동의함.

○ ○ ○ 위원

그러면 제가 부위원장을 맡는 것에 모두 동의하시는지?

(“예.”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위원님께서서 박수를 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도록 하겠음.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 주제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음.

위 원 장 (○ ○ ○ 위원)

오늘 회의 안건은 3건임.

첫 번째, 2018 서울물순환시민문화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두 번째, I·SEOUL·U 홍보상징물 서울광장 전시, 세 번째, 2018년 쿼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신고 건임.

심의 안건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하고, 질의응답 후 일괄심의 하겠음. 위원회의 토론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됨.

(의사봉 3타!)

상정된 순서에 따라 안건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음.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2018 서울물순환시민문화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안건에 대해 물순환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심의안건 제1호

2018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물순환정책팀장

저 영향 개발(도시물순환)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서울광장에서 3일 동안 물순환시민문화제를 진행하게 되었음. 이번이 3회차임.

서울광장에 설치되는 것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시설,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부스, 소상공인들을 위한 박람회장임. 상정이유는 서울광장이 유동인구가 많고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간이기 때문임.

박람회용 대형 텐트, 볼거리, 즐길 거리들을 위한 시설물 설치·철거를 위해 9일 간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설치는 7월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운영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철거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임.

주요 시설은 박람회장과 물놀이시설, 풍수해 체험시설임.

위 원 장 (○ ○ ○ 위원)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 ○ 위원

작년과 비교하여 변경되는 것이 있는지?

물순환정책팀장

프로그램 내용 자체는 변경 없음.

시설물 설치 관련하여, 물놀이기구의 설치 장소가 변경되었음.

물놀이기구는 작년에는 분수대 쪽에 설치되었는데,

I·SEOUL·U 조형물과 맞닿게 되는 문제가 있어, 안전을 위해 위치를 지하철 입구 쪽으로 옮겼음.

위 원 장 (○ ○ ○ 위원)

물놀이기구는 수영장 비슷한 것인지?

물순환정책팀장

미끄럼틀 2개가 물을 채운 수영장 안에 설치된 형태임.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크게 설치할 수 없어, 이용가능 인원 수를 제한하여 운영할 계획임.

위 원 장 (○ ○ ○ 위원)

사람들이 대거 몰려 서로 놀겠다고 하면 문제될 것 같은데, 놀이시간 제한이 있는지?

물순환정책팀장

운영초기에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후에는 펜스를 치고 관리요원 6명을 두어, 45분 운영하고 15분 쉬는 시간을 주면서 인원을 통제하고 있음.

물놀이기구 안으로 선착순으로 들어가게 하고 적정인원 수가 유지되도록 나오는 사람이 있을 때 다시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관리함.

위 원 장 (○ ○ ○ 위원)

15분 쉬는 동안 수영장 물을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는지?

물순환정책팀장

물 위에 부유물 등을 걷어내고, 쓰레기 등을 치우며, 진행요원들에게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의미도 있음.

위 원 장 (○ ○ ○ 위원)

운영시간 동안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물순환정책팀장

45분 동안 안에서 계속 노는 것이 아니라, 미끄럼틀을 한번 탄 후 물놀이 약 1~2분 하다가 나오고,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줄을 선 후, 미끄럼틀을 타고 물놀이 약 1~2분 정도 하고 나오는 구조임.

위 원 장 (○ ○ ○ 위원)

수영복을 대여할 수 있는지? 탈의실은 있는지?

물순환정책팀장

탈의실은 2회 차부터 설치를 해왔음.

꼬마들이 이용하다보니 보통은 옷 입은 상태로 들어가 이용을 하고 있어 수영복 대여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음.

○ ○ ○ 위원

2017년에는 국제물순환학술토론회가 있는데 올해도 있는지?

물순환정책팀장

작년에는 하루 동안 열렸는데, 올해는 서울물환경 심포지엄이라고 하여 규모를 키워 이틀 동안 8층 다목적 홀에서 열림.

○ ○ ○ 위원

이 시민문화제의 목적은 ‘물을 아껴쓰자’라는 캠페인을 하는 것인지?

물순환정책팀장

‘물을 아껴쓰자.’라는 부분도 있고, 저 영향 개발이라고, 도시 물관리에 있어서 빗물을 모아쓴다든지, 조경시설이나 옥상녹화를 조금 더 기능적으로 구성한다든지, 이런 도시공간에서의 물 관리를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패러다임과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했음. 이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나 인식이 중요한 부분인데, 모르는 분이 많아서 저 영향 개발 개념의 홍보·확산의 목적임.

○ ○ ○ 위원

만약에 취지가 그렇다면, 이게 빗물축제라는 것에 방점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물순환정책팀장

그러함.

○ ○ ○ 위원

자연 상태의 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여기 행사에 활용되는 물들이 빗물 등 자연 상태의 물인지?

물순환정책팀장

빗물이 많이 모이면 그 빗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나, 기상 상황에 따라 빗물 모이는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경우 수영장과 콘서트 때 뿌리는 물은 신청사에 저장돼 있는 빗물과 수돗물을 섞어서 씀.

○ ○ ○ 위원

그러면 행사명에도 빗물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 아닌지?

물순환정책팀장

그래서 시민문화제는 큰 행사이고, 작은 행사로 대 시민 행사 이름에 빗물축제가 들어가 있음.

위 원 장 (○ ○ ○ 위원)

광장 행사명에 제3회 빗물 축제라 되어 있는데, 광장에서 하는 것은 빗물 축제라 하고, 전체적으로는 심포지엄 등을 포함하여 서울 물순환시민문화제로 명명하였다는 취지인지?

물순환정책팀장

맞음.

위 원 장 (○ ○ ○ 위원)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물순환정책팀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됨. 심의 안건 두 번째 I·SEOUL·U 홍보상징물 서울광장 전시 건에 관하여 도시브랜드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안건 제2호

I·SEOUL·U 홍보상징물 서울광장 전시

도시브랜드담당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서울 시민의 자긍심 제고를 목적으로 브랜드를 제작하여 지난 2015년 10월 28일 서울광장에서 I·SEOUL·U 브랜드를 선포하였음.

개발과정에서 연인원 236,416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서울 시청 브랜드가 아닌, 서울시민이 주인인 시민브랜드로 만들어졌음. 2016년 5월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의 브랜드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서울의 글로벌 마케팅 및 관광마케팅의 핵심자산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음.

또한 시민참여 브랜딩을 통해, 2017년 하반기 인지도 80% 수준, 선호도 70% 수준을 보이는 등 선포 초기의 논란을 극복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음.

오늘 상정안은 지난 3월30일 서울광장에 I·SEOUL·U 홍보 상징물이 전시된 이후, 서울광장의 상징 및 포토 스팟이 되어 국내외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기에, 지속적인 전시를 통하여 그 의미를 더욱 확산하여 나가고 하고자 하는 것임.

상정이유는, 서울의 도시마케팅 일환으로, 국내외 관광객 및 시민들의 포토 스팟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광장이 서울관광의 필수코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I·SEOUL·U에 대한 친숙도 및 호감도를 제고하는데 있음.

전시기간은 2018년7월1일에서 2019년6월30일까지 1년이고, 장소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 앞임.

지난 3월30일 이곳에 설치할 때, 주변 환경과의 밸런스, 보행자의 동선 시민 안전 사항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설치함.

크기는 가로20m, 높이2.2m, 폭 1.2m임.

I·SEOUL·U 브랜드의 국내외 수상실적을 소개해 드리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2곳인 레드닷 어워드와 IF어워드에서 워너로 선정되었고, 미국의 굿-디자인 어워드와 국내 다수의 주요 언론사의 브랜드 상을 수상함.

서울 브랜드 I·SEOUL·U의 지속 전시가 가결된다면,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통해, I·SEOUL·U의 매력을 서울시민과 세계시민에게 확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 원 장 (○ ○ ○ 위원)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

기존 설치운영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광장 운영에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는지?

도시브랜드담당관

없었음.

위 원 장 (○ ○ ○ 위원)

3개월간 설치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서울광장에서 전시 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전시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서울광장에 전시하기로 한 것인지?

도시브랜드담당관

I·SEOUL·U 홍보상징물은 당초에 서울광장에 설치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서울광장에 설치를 위해 처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상정하였을 때, 잔디식재 기간 전후로 3개월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음.

이후 약 1년 넘게 여의도 한강공원에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활용했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게시됨.

지난 선거방송에서도 모 방송사 스튜디오가 그 옆에 설치되어 I·SEOUL·U를 중점적으로 보도했고, 일기예보나 서울시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 등 각종 방송사에서 배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음. 한강에 있던 I·SEOUL·U 홍보상징물을 서울광장에 옮겨온 후 한강에는 별도의 I·SEOUL·U 홍보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음.

위 원 장 (○ ○ ○ 위원)

I·SEOUL·U 홍보상징물 전시를 여러 군데로 확산하고자 함인지?

도시브랜드담당관

그러함

위 원 장 (○ ○ ○ 위원)

항구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년만 연장 전시할 계획인지?

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들은 항구적으로 설치하기를 원하지만, 서울광장의 여건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하여 일단 한 1년 정도 설치를 해 본 후에 재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 ○ 위원

재질이 무엇인지?

도시브랜드담당관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서울광장과 홍보상징물이 조화되도록 도색 등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 ○ ○ 위원

둘 같은 항구적인 재질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지?

위원장 (○ ○ ○ 위원)

1년과 같이 장기 전시하는 것은 아예 불박이 조형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장에 항구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이전부터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 ○ ○ 위원

처음에 I·SEOUL·U 엠블럼을 만들었을 때, 어법에 맞지 않고 이상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비판들은 없는지?

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의 시범사례인 암스테르담과 베를린에서도 초기에는 약 7~80%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었다고 들었고,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의 70% 정도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에서 레드닷 어워드, IF 어워드 등 2개를 저희가 수상했고, 미국의 굿-디자인 어워드도 수상을 한 점에서 이런 문제가 사라졌다고 보임.

○ ○ ○ 위원

홍보상징물에 시민들이 올라갔을 때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

도시브랜드담당관

2015년 12월 말에 제작되어서 어린이대공원과 한강공원에 설치되었는데, 그 간에 사건 사고는 한 건도 없었음.

그리고 ‘이 공간에 올라가지 말라’는 주의 경고 표시도 해두었음.

그러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영조물보험에 가입하였음.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 앞에 암스테르담 홍보상징물이 있는데, 저희의 것과 크기가 비슷함. 그런데 거기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고 함.

○ ○ ○ 위원

광장행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

도시브랜드담당관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안정성을 감안하여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수인원이 밀어도 꿈쩍하지 않고, 여럿이 올라가도 흔들리거나 무너질 염려가 없음.

위 원 장 (○ ○ ○ 위원)

더 질의사항 없으신지? 도시브랜드담당관께서는 돌아가셔도 됨.

심의안건 제3호

2018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신고

위 원 장 (○ ○ ○ 위원)

2018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관해 총무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총 무 과 장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겠다는 사용신고가 접수됨.
서울광장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서울광장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리함이 원칙임.

그러나 2015년부터 2017년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퀴어축제
참가자 일부의 과다 노출행위 등이 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된다는
반대 여론이 지속된 바 있음.

이에 따라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듣고, 특히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안전
상정함.

사용기간은 7월12일부터 14일 3일간임.

12일, 13일은 준비기간이고 14일 행사를 진행함.

내용은 전시회, 축하발언, 합창, 댄스공연, 퍼레이드 등 문화
행사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음.

그간에 사용신청 및 중복조정회의가 몇 차례 있었음.

최초로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사용하겠다는 신고가 있었음.

이때는 여성정책담당관 쪽의 '서울 성 평등 문화로 피다'라는
축제 개최를 위한 중복신청이 있어서, 여성정책담당관 쪽의
사용으로 조정된 바 있음.

두 번째로 7월 12일부터 14일에 대해서도 중복신청이 있었는데,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음.

'17년도 퀴어문화축제 이후 일부 시민이 주장하는 신체노출행위, 그리고 신체일부모양의 물품 전시·판매행위 등이 광장의 조성 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 활동에 부합되는지 여부, 영리목적 판매의 금지위반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사에 대해 광장사용 신고 수리 여부가 논의사항임.

광장 조례 9조에 의하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광장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행사 진행 중에는 현실적으로 정지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서울 광장 내에서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시민 및 단체가 있는데,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 여부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함. 금년의 경우 전주에서는 4월7일 날 이미 개최된바 있고, 대구에서는 6월 중 개최예정인 등 총 6개 도시에서 퀴어축제가 개최 예정임. 이에 대하여 퀴어반대축제인 2018년 홀리 페스티벌 문화축제가 7월14일 토요일 청계광장에 사용 허가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 위원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 여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가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함.

○ ○ ○ 위원

신체 노출행위 및 신체 일부 모양의 물품 전시·판매 행위 등이 광장의 조성 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 활동에 부합하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의 논의 사항인지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충분히 전달이 되었는지?

총 무 과 장

전달하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계획임.

○ ○ ○ 위원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기 모양을 본뜬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제재를 하는지?

총 무 과 장

판매 등 영리가 주목적인 행사인 경우, 저희들이 당연히 사용 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음.

그런데 서울광장 사용집회에 보면 가끔 일부분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했음.

퀴어축제 건도 영리 추구가 주목적이 아니라 전체 축제 프로그램의 진행상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일부 참가자의 판매행위를 가지고 진행 중인 행사를 강제로 정지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 ○ ○ 위원

노출행위나 음란물 판매행위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하는 등 전체 행사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므로 자제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지?

총 무 과 장

과거에도 요구를 했고, 축제 관계자에게 계속하여 분명하게 고지하고 있음.

○ ○ ○ 위원

작년의 행사에서는 영리판매나 과다노출이 많이 발견이 됐었는지?

총 무 과 장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고지도 했고 관할 경찰서랑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도를 하였으며, 시청 차원에서도 12개 반에 60명의 현장 계도 요원이 구성되어 행사 당일 하루 종일 계도하였음.

몇 차례의 고지는 있었지만, 경범죄처벌까지 될 정도의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 ○ 위원

아마 '15년도에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발도 되고, 퀴어반대 집회와 충돌도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주의를 많이 줘서 그나마 작년에는 조금 덜했던 것 같음.

○ ○ ○ 위원

부스를 몇 개 설치하는지?

총 무 과 장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음. 결정이 되면 퀴어축제 준비 위원회에서 별도로 이행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하게 되어있음.

○ ○ ○ 위원

작년도에 할 때 보니 퀴어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해 입구를 별도로 만들어 외부하고 분리를 해놓았던데, 올해는 어떤지?

총 무 과 장

올해도 그런 식으로 준비할 예정임.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 막아야 되므로, 분리가능한 한 최대한 분리하는 식으로 협의를 하려고 함.

○ ○ ○ 위원

구경을 원하지 않는 일반시민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퀴어인들만의 자체적인 행사로 되도록 하는 방안은 좋은 것 같음.

○ ○ ○ 위원

행사를 14일 하루 하는데, 기간은 12일부터 14일까지 광장 사용 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총 무 과 장

보통 행사하기 위해서 2~3일 동안 행사 준비를 하는데, 아마 부스 설치를 하기 위한 여유를 둔 것 같음.

○ ○ ○ 위원

실제 행사는 진행하지 않고 행사 준비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자칫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지?

총 무 과 장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행사 준비를 위한 설치 기간으로 신고하고 있음.

준비기간에 대해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사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협의 가능함.

예를 들어 12일 날 신청이 들어온다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고 조정하겠음.

○ ○ ○ 위원

시가행진 계획도 서울시에 같이 신고하는지?

아니면 집회신고는 따로 경찰서에 내는지?

총 무 과 장

집회신고는 따로 관할경찰서에 내지만, 저희들과도 상의는 함.
그러나 저희들은 서울광장만 관리하기 때문에, 시가행진 부분은
경찰서가 주가 되어 협의하게 되어 있음.

○ ○ ○ 위원

탈동성애 단체가 같은 날 홀리페스티벌 문화축제를 개최
예정이라면 혹시 두 행사 인원이 충돌될 우려는 없는지?

총 무 과 장

관할경찰서 등 관계부서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고, 충돌방지를 위해 행사 진행자에게 신신당부 할 것임.
경찰에서도 작년에 경비경력이 배치된 바 있음.
올해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음.

○ ○ ○ 위원

퀴어축제 서울광장 개최에 대해 비판 논조의 기사가 주요하
게 다뤄지는 등 퀴어축제 반대 여론도 무시할 수 없음.
만약 위원님들이 이번 위원회에서도 수리를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결정한다면, 앞으로 음란물 판매나 파다노출이 있는
경우 광장 사용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넣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총 무 과 장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1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네 번째
인데, 네 번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쳐지
지 않는다면, 위원님들이 '내년도에는 수리가 어렵다'라는 판
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쪽 축제 관계자에
게 강력하게 고지하겠음. 그리고 수리할 때 조건을 붙이도록
하겠음.

○ ○ ○ 위원

'15, '16년에 비해 작년 '17년도는 상당히 질서가 많이 향상된 것도 끊임없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와 같은 의견을 내어 고지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총 무 과 장

저희들도 같은 생각임.

○ ○ ○ 위원

또 제가 보기에 퀴어축제 초기에는 이분들이 사회적 상징성 때문에 과격하게 나갔을 수 있지만,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성 소수자 존중 문화가 시민들의 마음속에 순조롭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낫고, 그것이 자기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여짐.

위 원 장 (○ ○ ○ 위원)

더 질의사항 없으신지?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됨.

심의안건 제1호

2018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결론

위 원 장 (○ ○ ○ 위원)

심의 안건 1호 2018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안 가결에 동의하는지?

(“예.”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위 원 장 (○ ○ ○ 위원)

심의 안건 1호 2018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안은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음.

(의사봉 3타!)

심의안건 제2호

I·SEOUL·U 홍보상징물 서울광장 전시 결론

위 원 장 (○ ○ ○ 위원)

I·SEOUL·U 상징물 서울광장 전시 건 가결에 대해 동의하는지?

○ ○ ○ 위원

동의하나, 홍보 상징물의 모서리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마감처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음.

총 무 과 장

홍보물 때문에 상해를 입지 않게 마감처리에 신경쓰도록 해당부서에 전달하겠음.

위 원 장 (○ ○ ○ 위원)

그렇다면 안전에 관한 것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가결하는 것이 어떤지?

(“예.”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위 원 장 (○ ○ ○ 위원)

2호 안건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조치를 선행하고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하겠음.

(의사봉 3타!)

심의안건 제3호

2018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신고 안전 결론

위 원 장 (○ ○ ○ 위원)

2018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신고 수리 건은 의결, 보류, 부결이라고 하기보다는, 작년의 의결사항에 ‘열린광장시민운영 위원회에서 다수 위원이 서울광장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다, 불수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것처럼 정확히 이야기하면 서울광장 조례에 따르면 부결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지?

○ ○ ○ 위원

같은 의견임. 허가가 아니라 신고면, 수리할 건지 말건지 결정하면 되는데,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느냐, 없느냐’만 검토할 수 있을 뿐이고, ‘명료하게 불수리 사유가 있다, 그래서 신고 수리를 못한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위법 사유가 없음. 그러므로 신고는 수리가 원칙임.

결국 아주 예외적으로 불수리 사유가 있으면 불수리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작년 결정과 같이 ‘불수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봄.

저희가 의결 기관이 아니라 심의 기관이므로, ‘수리 한다, 않는다’를 저희가 논할 권한 자체가 없는 기관임.

그러므로 작년 정도 수준으로 결론을 내면 되지 않을까 싶음.

위 원 장 (○ ○ ○ 위원)

예, ○○○ 위원님 의견에 특별히 이의 없으신지?

○ ○ ○ 위원

동의함.

위 원 장 (○ ○ ○ 위원)

그렇다면 ‘불수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겠음.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8년 6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마치겠음.